

## □ 기획연재 □

## 컴퓨터 과학 산책(8)

## 자동차와 컴퓨터

홍익대학교 노삼혁\*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도 자동차 문화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어언 10년이 지난 지금은 자동차 홍수 시대로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자동차의 용도는 실제로 매우 간단하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사람과 짐을 편리하게 옮겨 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 그러나 그 용도와는 달리 자동차는 사람들의 부의 상징으로 변하였고 때로는 심지어 인간 계층의 차별화까지도 가져오곤 한다. 큰 차를 탄 인물들을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작은 차를 타면 낮은 사람이 되고, 또 사회가 그렇게 인식하기에 너도나도 큰 차 타기를 희망하는 듯하다.

이 자동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이용하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장치들에 대해서는 모른다. 또, 일반적으로 알려져 하지도 않는다. 단지 몇 개월에 한 번씩 윤활유나 갈아주고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나 점검해 주고 기름 탱크에 기름이 떨어졌나 확인해 줄 뿐이다. 어쩌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의뢰하고 그 곳의 기술자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맡기고 온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럼 이제 컴퓨터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요사이 신문을 보면 컴퓨터 선전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제 컴퓨터의 보급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컴퓨터의 사용은 자동차와는 달리 나이 제한이나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기에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나이층에서 그 사용이 이루어지는 줄 안다. 그런데 이 컴퓨터의 용도가 도대체 무언지 궁금하다. 실제로 컴퓨터라는 장치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일에 사용되는지 알고 싶다. 요사이 '컴맹'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누구나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외쳐대고 있다. 그런데 컴퓨터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무엇을 배워야 컴맹 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것이고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지 틀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 이는 마치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컴퓨터를 이정도 다루면 컴맹은 아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해도 자동차의 작동 원리와 엔진의 내부 구성이나 부품에 대해 알 필요가 없듯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도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다룰 필요가 없다. 기본적인 내용을 자동차 학원에서 배우고 면허증을 발부판을 실력만 되면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듯 최소한의 내용만 배우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하는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한다. 면허증만 따고 몇 개월 운전하다 보면 운전이 수월해지듯 컴퓨터를 몇 개월 해 보니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세상에 넘쳐흐르는 정보를 자기 입 맛에 맞게 적당히 다룰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우리들이 비전공자, 즉 일반 사용자들을 대하면서 잘못 해온 점들이 있다.

우선 컴퓨터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요구가 한

\*정희원

전히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공자된 우리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고, 그 구성과 구조에 대해 알고, 운영체제의 설계가 어떻게 됐고, 어떠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고 나쁘고 따진다. 그러나 비전공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동차의 엔진이 DOHC이건 아니건(사실 필자는 DOHC 엔진이 어떠한 원리로 더 좋은 것인지 모른다) 자기 차가 싸고 안전하면 좋은게 아닌가? 그러므로 일반인에게는 컴퓨터의 사용이 편리하여 원하는 정보를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얻어 내도록 하고 평소에 하던 작업들을 컴퓨터를 사용하므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하면 된다. 좋은 툴(tool)을 소개하고 툴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리키면 된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컴퓨터를 너무 어렵게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컴퓨터를 더욱 어렵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경우에 사람을 만나 컴퓨터를 전공한다고 하며 내 자신을 소개하게 될 경우에 상대방은 '참 어려운 것을 하시네요'하고 인사한다. 인사치레이겠지만 나는 혼자서 '저 사람 내가 무슨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하고 의문을 갖곤 한다. 이는 필경 컴퓨터라는 것은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물체라는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일 것이다.

이는 또한 전날 우리들이 컴퓨터라고 하면 프로그래밍을 생각하여 플로우차트를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며 교육받고, 또 아직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들은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기에 자부심도 갖고, 또 때로는 교만함도 생겨 남들도 좀 어렵게 컴퓨터를 배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은근히 갖는게 아닐까? 이렇듯 Computer-phobia를 유발하기보다는 컴퓨터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 임무로 생각된다. 일단 친근해지면 언젠가는 사용이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와 매우 유사하다. 면허증을 받자마자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사람은 없다. 동네에서 한가할 때 운전 연습을 많이 한 후 조금씩 대답해지고 운전이 수월해졌을 때 고속도

로도 운전해 보게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언어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데이터 타입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스트럭처가 있고, 객체지향적이고 등등은 단지 컴퓨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용어들일 뿐이다. 그것보다는 약간의 tailoring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싸고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필요하다. 컴퓨터 구조가 어떻고 운영체제가 어떻고 하는 내용보다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작업을 더 빨리 해줄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된다.

또 한편, 컴퓨터는 자동차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운전하는 방법이 엔진마다 다르다.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그 기능들도, 그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 운전은 한 번 배우면 평생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틱 운전을 하다가 오토매틱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란 그렇게 크지 않다. 자동차보다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운전 방식들도 큰 차이는 없다. 특히 하나의 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른 툴을 사용하는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computer-phobia를 일단 이겨낸 사람이라면 더욱 그리하리라 생각된다.

정리하기로 하겠다. 필자는 몇 일 전에 신문 지상에서 기업의 임원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다루나'라는 질문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응답 통계를 보았다. 어떠한 의미로 던져진 질문인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나는 자동차를 얼마나 잘 다루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 보았다.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고 사고도 내가 유발시킨 적이 없으므로 '매우 잘 다룬다'라고 대답해야 하나? 아니면 평생에 내 손으로 윤택유를 딱 한 번 교환해 봤으므로 '잘 다루지 못한다'라고 대답해야 하나? 아리송한 질문에 아리송한 대답인 듯 하다. 분명 시대는 컴퓨터를 모르던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대이다. 그러나 컴퓨터를 알고 모른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 시대이다.